

## 청소년의 부모애착, 정서적 섭식행동, 정서조절과 인지왜곡의 구조적 관계 및 성별간 다집단분석

김혜원  
이화여자대학교

이지연\*  
인천대학교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정서적 섭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과 인지왜곡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남녀 청소년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남녀 청소년 473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안정애착을 지닐수록 정서조절을 잘하고, 체중과 섭식에 대한 인지왜곡은 낮으며, 정서적 섭식행동이 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조절을 잘할수록 정서적 섭식행동이 덜 나타나고, 체중과 섭식에 대한 인지왜곡이 높을수록 정서적 섭식행동이 많이 나타났다. 둘째,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이라고 무조건 정서적 섭식행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안정애착이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으로 이어져, 정서조절능력이 클수록 정서적 섭식행동이 덜 나타났다. 셋째,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체중과 섭식에 대한 인지왜곡을 보이는 경향이 낮았고, 낮은 인지왜곡을 보일수록 정서적 섭식행동도 덜 나타났다. 즉, 부모애착과 정서적 섭식 행동의 관계를 정서조절과 인지왜곡이 매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모애착 그 자체가 정서적 섭식을 예측하는 단일 변인으로 유의하지 않고, 정서조절과 인지왜곡이 연결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다집단분석 결과에 의하면, 남녀 청소년 집단 간의 경로계수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 주요어: 부모애착, 정서적 섭식, 정서조절, 인지왜곡, 매개효과, 다집단분석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지연,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인천광역시 연구원  
아카데미로 119(송도동), Tel: (032)835-8160, E-mail: becoming@inu.ac.kr

현대 사회는 날씬한 몸매가 미의 기준이고, 성공에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으며,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지나칠 정도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다이어트나 체형 불만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천정웅, 2013). 즉, 날씬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적 풍조로 인해 청소년들은 아름다움의 기준을 마른 체형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체형을 왜곡되게 바라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체형에 불만족하게 되어 정상 체중이나 심지어 저체중의 청소년들도 무리하게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다(여중석, 2014).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과도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들의 섭식장애로 이어지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천정웅, 2013).

한편 비록 여성에 비해 낮은 비율이기는 하나 남성들의 섭식장애 유발 비율도 점점 더 증가된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섭식행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Pesa & Turner, 2001). 이와 관련하여, 요즈음 성인 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된 모형을 청소년 집단과 남자 집단에 적용하고, 이 때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에 대한 연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김혜련, 박수경, 김혜성, 2008). 또한 성별에 따라 섭식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이 다르게 나타나고(김영신, 양난미, 2010), Büyükgöze-Kavas가 언급한 바처럼 무엇보다 성별은 섭식장애 유병율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라는 점을 참조할 때, Zabunoglu의 제언처럼 섭식장애의 속성을 규명하는데 있어 성별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겠다(문소현, 2008에서 재인용). 특히,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섭식장애의 전형적인 형태는 청소년 시기 혹은 성인 초기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김정내, 임성문, 2007), 연령이 낮을수록 섭식장애 증상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김계하, 양경미, 2008; 이미현, 김정규, 2012),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집단의 섭식행동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섭식행동과 관련하여, DSM-V(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fifth edition)에 따르면 폭식은 일정한 시간 내에 유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섭취하는 것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고, 음식을 먹는 동안에 조절능력을 상실하여 먹는 것을 멈추지 못하며, 먹는 양을 조절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권석만, 2013에서 재인용). 그리고 이러한 폭식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정서적 섭식(emotional eating)으로 나타났다(이연희, 2010). 정서적 섭식은 신체적 허기가 아닌 우울·불안·분노·외로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의해 촉발되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말한다(Pinaquy, Chabrol, Simon, Louvet, & Barbe,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폭식이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주요한 증상이고 개선이 필요한 행동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폭식행동의 가장 결정적인 지표가 정서적 섭식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최근 섭식장애 방면에서 주목하고 있는 정서적 섭식 행동(김정안, 2012)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여러 연구들에서 섭식장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부모와의

애착을 들고 있다(Kiang & Harter, 2006; Ty & Francis, 2013). 구체적으로, 섭식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들의 83~100%가 불안정애착을 보이고(Kiang & Harter, 2006; Ringer & Crittenden, 2007), 애착이 폭식 및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과 같은 비적응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는 연구(Kenny & Hart, 1992)들이 있다. 이렇게 섭식장애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애착의 영향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이 애착과 섭식장애를 연결하는 매개 과정 혹은 변인을 살펴보는 것에 관심을 덜 기울인 것이 사실이고(Ty & Francis, 2013), 임상 실제에서도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섭식장애를 치료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왔다(Tasca et al., 2009). 그런데 사실상 애착은 결과변수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긍정적인 기능에 영향을 끼쳐 결과변수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매개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애착의 영향력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은 매개변인들이 포함된 경우에도 여전히 애착의 영향력이 유의미할 가능성이 있다(Sroufe,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애착관련 내적 작동 모델이 가동되는 구체적 경로가 매우 복잡하다는 이론적 주장(Cook, 2000; Hamilton, 2000; Lewis, Feiring, & Rosenthal, 2000)을 참고하여, 애착이 정서적 섭식행동에 미치는 과정에도 여러 매개변인들이 관여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경우에 자녀의 인지·정서·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Bowlby, 1982)과 애착이론(Bowlby, 1982)이 인지왜곡 및 정서조절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적 틀 중의 하나라는 것에 주목하여 애착이 정서적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이 연결 통로가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애착이 정서적 섭식에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Salovey와 Mayer는 정서조절이란 자신의 정서를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자극되는 상황에서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반응하여 균형감 있게 조절할 줄 아는 것, 다시 말해 사회·정서·인지·행동적 유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가정을 비롯한 공동체적 인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이시은, 2009 에서 재인용). 만약 정서조절능력이 결핍될 경우 정서조절곤란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정서조절의 어려움은 다양한 정신 병리의 발달·재발·유지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Bouchard et al.,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서조절의 중요성을 주목하여 보고, 애착이 정서적 섭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사실상 애착이론은 지난 20년 간 정서조절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개념적 틀 중의 하나로, 애착 연구자들은 애착의 결과 정서조절의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Mikulincer & Shaver, 2012). Goldberg도 Ainsworth의 낯선 상황 실험에서 실제적으로 측정된 것은 정서조절이라고 언급하며(Bradley, 2000에서 재인용), 애착과 정서조절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지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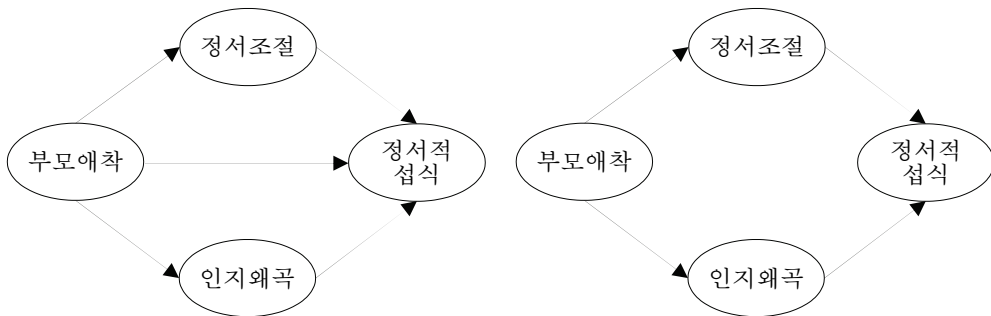
정서조절은 정서적 섭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Polivy 등과 van Strien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불안·분노·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느낄 때 의욕상실을 경험하는 반면, 정서적 섭식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때 당황하고 더 먹게 된다고 보고하였다(남현지, 2013에서 재인용). 특히,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감정 기복이 심하고, 사회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부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할 뿐 아니라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폭식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이미현, 2009; Whiteside, Chen, Neighbors, Hunter, Lo, & Larimer, 2007). 그런데 애착, 정서조절, 정서적 섭식의 세 변인을 살펴본 연구가 적고, 그마저도 각각의 변인들의 부분적인 관계만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 정서조절, 정서적 섭식 변인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살펴보고자 하였고, 애착과 정서적 섭식의 관계 속에서 정서조절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더 초점을 두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지왜곡 변인에 주목하였다. 인지왜곡은 외부사건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과정으로 논리의 오류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이정운, 2007). 이러한 인지왜곡은 선천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하나 부모나 교사 등 유의미한 타자와 사회구조적 문화에 의해 주입되고, 반복경험을 통해 강화되는 특성을 지닌다(임현숙, 2008). 애착과 인지왜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와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역기능적 인지를 보이고(Jones, Leung, & Harris, 2006; Turner, Rose, & Cooper, 2005),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이 형성된다는 주장들이 있다(Bowlby, 1982). Lundholm과 Waters(1991)도 피험자들이 가족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섭식행동과 음식에 대한 관점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부정적인 초기경험의 중심에 있는 부모와의 관계 혹은 애착이 인지왜곡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편, 섭식·체형·체중과 관련된 인지왜곡은 비임상적 집단보다 섭식장애가 있는 집단에게서 훨씬 더 빈번하게 나타났고(최진미, 김남재, 2009), 폭식증 환자들이 체형·체중과 같은 신체영역에 대해 심각한 인지왜곡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김정옥, 2000). 즉, 체중과 체형에 대한 특징적인 왜곡된 신념이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이정애, 1997; 임소영, 2006; 조희경, 2009; Wilson & Fairburn, 1993). 이동숙(2003) 또한 여자 청소년들이 체형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때, 정서적 섭식행동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부모와의 애착이 인지왜곡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왜곡은 정서적 섭식행동을 비롯한 이상 섭식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정서적 섭식의 관계 속에서 인지왜곡의 매개역할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부모와의 애착이 정서적 섭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과 인지왜곡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또한 이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고, 본 연구를 통해 남녀 청소년들의

섭식장애 예방 및 치료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먼저 두 모형을 비교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즉, 부모 애착이 정서적 섭식을 비롯한 섭식장애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Suldo & Sandberg, 2000; Ty & Francis, 2013)을 근거로 부모애착이 정서적 섭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정서조절과 인지왜곡을 매개로 정서적 섭식에 간접 영향을 주기도 하는 부분매개모형을 그림 1의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부모애착이 심리적인 장애와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이 크지 않고, 장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작용하는 요인이라는 주장(김정내, 임성문, 2007; Taube-Schiff et al., 2015)을 근거로 부모애착과 정서적 섭식 행동의 직접 경로를 설정하지 않은 완전매개모형을 그림 2의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청소년들의 애착과 정서적 섭식의 관계를 정서조절이 매개하는가? 둘째, 남녀 청소년들의 애착과 정서적 섭식의 관계를 인지왜곡이 매개하는가? 셋째, 성별에 따라 애착, 정서조절, 인지왜곡, 정서적 섭식 간의 구조적 관계는 차이를 보이는가?



[그림 1]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그림 2]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및 인천 소재의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 502명을 대상으로 2014년 12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473부의 자료를 연구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분포는 남학생 201명(42.5%), 여학생 272명(57.5%)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학교는 중학생이 263명(55.6%), 고등학생은 210명(44.4%)으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 부모애착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모님에 대한 애착 안정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의 개정본(IPPA-R)을 옥정(1998)이 수정·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IPPA-R은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의 3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되는데, 의사소통(총 9문항)은 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고 이해하려 하는가를 나타내고, 신뢰감(총 10문항)은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부모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며, 소외감(총 6문항)은 부모와 정서적으로 느끼는 거리감을 나타낸다. 총 25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항상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애착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고수영(2013)의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7로 나타났다.

### 정서적 섭식

섭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Van Strein, Frijters, Bergers와 Defares(1986)가 개발한 식이행동 질문지(DEBQ: Dutch Eating Behavior Questionnaire)를 김효정, 이임순, 김지혜(1996)가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33개 문항 가운데 분노, 두려움,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상태가 식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정서적 섭식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총 13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섭식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섭식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박윤선과 최윤경(2014)의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 정서조절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Mayer와 Salovey(1997)의 정서지능모형에 입각하여 문용린(1999)이 개발한 정서지능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40개 문항 중에서 자신의 부정적인 기분이나 감정을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기분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정서조절 척도만을 이용하였다. 정서조절 척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조절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오성경(2011)의 연구에서 .8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71로 나타났다.

### 인지왜곡

Mizes의 인지왜곡 척도는 신경성 식욕 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과 관련된 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Mizes와 Klesges(1989)가 고안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이정애(1997)가 재분석·변안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Mizes의 인지왜곡 척도는 체중증가에 대한 엄격한 통제(총 8문항), 외모와 체중이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에 미치는 영향(총 8문항), 섭식에 대한 자기통제와 자기존중(총 5문항), 음식주제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총 7문항), 섭식·체중·음식 주제에서의 개인화·과장·미신적 사고 경향(총 5문항)의 5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된다. Mizes의 인지왜곡 척도는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 항상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섭식과 체중에 대한 역기능적 인지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Mizes의 인지왜곡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조성실(2009)의 연구에서 .9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석했다. 첫째, 부모애착, 정서조절, 인지왜곡, 정서적 섭식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했다. 둘째, 연구변인의 경향성과 정상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했다. 셋째,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했다. 넷째, 부모애착이 정서적 섭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과 인지왜곡의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여 매개모형의 적합도 및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본격적인 모형 검증에 앞서,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문항 꾸러미(item parcels)를 제작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애착과 인지왜곡은 각각의 하위척도를 측정변인으로 이용하여 잠재변인을 구성하였다. 정서조절과 정서적 섭식은 각 꾸러미가 잠재변수에 동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하여 각각 3개의 꾸러미로 구성하였다.

구조모형 검증은 구조방정식의 2단계 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진행했다. 우선,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했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전체 적합도 및 각 경로의 유의도를 확인했다. 모형의 적합도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영가설을 쉽게 기각할 수 있는  $\chi^2$  값 이외에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함께 확인했다. 이때, CFI와 TLI가 .90 이상이고(Bentler, 1990), RMSEA가 .08 이하이면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판단했다(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그 뒤, 부모애착과 정서적 섭식 사이에서 정서조절과 인지왜곡의 간접 효과에 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했고,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라 주요변인들 간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각 변인별 기술통계 및 상관

모형검증에 앞서, 측정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그리고 변수 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변인들이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연구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그런데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정상분포곡선(왜도 < 2, 첨도 < 4)을 고려했을 때(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 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특히, 인지왜곡이 정서적 섭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었고( $r=.43$ ), 부모애착도 인지왜곡과 비슷한 정도의 관련성을 보였다( $r=.42$ ). 그 외에 정서조절과 정서적 섭식( $r=-.38$ ), 부모애착과 정서조절( $r=.33$ ) 및 부모애착과 정서적 섭식의 관계( $r=-.27$ )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측정모형의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14개의 측정변수들이 애착, 정서조절, 인지왜곡, 정서적 섭식 총 4개의 잠재변수를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71, N=473)=209.38$ ,  $p<.001$ , CFI=.97, TLI=.97, RMSEA=.064(90% 신뢰구간 .054~.074). 또한, 측정변수들은 잠재변수에 .64~.98까지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고,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변수에 대한 잠재변수의 요인 부하량은 부모애착이 .83~.98, 정서조절이 .64~.73, 인지왜곡이 .78~.83, 정서적 섭식이 .92~.97이었다.

### 구조모형의 검증

청소년의 부모애착을 예언변수로, 정서조절과 인지왜곡을 매개변수로, 정서적 섭식 행동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이 경험적 자료와 잘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적합도를 검증하였고,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 주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변수 간 상관계수(N=47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의사소통	1																		
2. 신뢰감	.90 <sup>**</sup>	1																	
3. 소외감	.76 <sup>**</sup>	.81 <sup>**</sup>	1																
4. 부모애착 전체	.96 <sup>**</sup>	.97 <sup>**</sup>	.88 <sup>**</sup>	1															
5. 정서조절1	.18 <sup>**</sup>	.22 <sup>**</sup>	.24 <sup>**</sup>	.22 <sup>**</sup>	1														
6. 정서조절2	.18 <sup>**</sup>	.23 <sup>**</sup>	.26 <sup>**</sup>	.23 <sup>**</sup>	.50 <sup>**</sup>	1													
7. 정서조절3	.30 <sup>**</sup>	.34 <sup>**</sup>	.35 <sup>**</sup>	.35 <sup>**</sup>	.52 <sup>**</sup>	.45 <sup>**</sup>	1												
8. 정서조절 전체	.28 <sup>**</sup>	.33 <sup>**</sup>	.35 <sup>**</sup>	.33 <sup>**</sup>	.83 <sup>**</sup>	.78 <sup>**</sup>	.82 <sup>**</sup>	1											
9. 인지왜곡1	-.29 <sup>**</sup>	-.32 <sup>**</sup>	-.34 <sup>**</sup>	-.33 <sup>**</sup>	-.21 <sup>**</sup>	-.21 <sup>**</sup>	-.25 <sup>**</sup>	-.27 <sup>**</sup>	1										
10. 인지왜곡2	-.37 <sup>**</sup>	-.43 <sup>**</sup>	-.45 <sup>**</sup>	-.43 <sup>**</sup>	-.28 <sup>**</sup>	-.30 <sup>**</sup>	-.34 <sup>**</sup>	-.38 <sup>**</sup>	.71 <sup>**</sup>	1									
11. 인지왜곡3	-.30 <sup>**</sup>	-.38 <sup>**</sup>	-.43 <sup>**</sup>	-.38 <sup>**</sup>	-.26 <sup>**</sup>	-.23 <sup>**</sup>	-.33 <sup>**</sup>	-.34 <sup>**</sup>	.67 <sup>**</sup>	.66 <sup>**</sup>	1								
12. 인지왜곡4	-.24 <sup>**</sup>	-.30 <sup>**</sup>	-.41 <sup>**</sup>	-.31 <sup>**</sup>	-.21 <sup>**</sup>	-.16 <sup>**</sup>	-.23 <sup>**</sup>	-.25 <sup>**</sup>	.62 <sup>**</sup>	.63 <sup>**</sup>	.69 <sup>**</sup>	1							
13. 인지왜곡5	-.33 <sup>**</sup>	-.40 <sup>**</sup>	-.43 <sup>**</sup>	-.40 <sup>**</sup>	-.27 <sup>**</sup>	-.26 <sup>**</sup>	-.31 <sup>**</sup>	-.35 <sup>**</sup>	.63 <sup>**</sup>	.66 <sup>**</sup>	.64 <sup>**</sup>	.63 <sup>**</sup>	1						
14. 인지왜곡 전체	-.35 <sup>**</sup>	-.42 <sup>**</sup>	-.47 <sup>**</sup>	-.42 <sup>**</sup>	-.28 <sup>**</sup>	-.26 <sup>**</sup>	-.32 <sup>**</sup>	-.36 <sup>**</sup>	.89 <sup>**</sup>	.86 <sup>**</sup>	.85 <sup>**</sup>	.84 <sup>**</sup>	.79 <sup>**</sup>	1					
15. 정서적 섬식1	-.23 <sup>**</sup>	-.29 <sup>**</sup>	-.32 <sup>**</sup>	-.29 <sup>**</sup>	-.33 <sup>**</sup>	-.26 <sup>**</sup>	-.33 <sup>**</sup>	-.38 <sup>**</sup>	.34 <sup>**</sup>	.36 <sup>**</sup>	.45 <sup>**</sup>	.31 <sup>**</sup>	.30 <sup>**</sup>	.41 <sup>**</sup>	1				
16. 정서적 섬식2	-.19 <sup>**</sup>	-.26 <sup>**</sup>	-.31 <sup>**</sup>	-.26 <sup>**</sup>	-.31 <sup>**</sup>	-.26 <sup>**</sup>	-.35 <sup>**</sup>	-.38 <sup>**</sup>	.37 <sup>**</sup>	.40 <sup>**</sup>	.48 <sup>**</sup>	.33 <sup>**</sup>	.30 <sup>**</sup>	.44 <sup>**</sup>	.89 <sup>**</sup>	1			
17. 정서적 섬식3	-.18 <sup>**</sup>	-.25 <sup>**</sup>	-.28 <sup>**</sup>	-.24 <sup>**</sup>	-.29 <sup>**</sup>	-.26 <sup>**</sup>	-.32 <sup>**</sup>	-.36 <sup>**</sup>	.34 <sup>**</sup>	.35 <sup>**</sup>	.44 <sup>**</sup>	.29 <sup>**</sup>	.29 <sup>**</sup>	.40 <sup>**</sup>	.93 <sup>**</sup>	.88 <sup>**</sup>	1		
18. 정서적 섬식 전체	-.21 <sup>**</sup>	-.28 <sup>**</sup>	-.32 <sup>**</sup>	-.27 <sup>**</sup>	-.32 <sup>**</sup>	-.27 <sup>**</sup>	-.34 <sup>**</sup>	-.38 <sup>**</sup>	.36 <sup>**</sup>	.38 <sup>**</sup>	.47 <sup>**</sup>	.32 <sup>**</sup>	.31 <sup>**</sup>	.43 <sup>**</sup>	.98 <sup>**</sup>	.95 <sup>**</sup>	.97 <sup>**</sup>	1	
평균	3.73	3.98	3.78	3.84	1.02	1.07	1.83	1.24	2.63	2.45	2.05	1.93	2.29	2.30	0.44	0.55	0.53	2.15	
표준편차	0.90	0.82	0.73	0.78	0.25	0.21	0.41	0.23	0.91	0.61	0.81	0.74	0.56	0.63	0.20	0.30	0.27	1.03	
왜도	-.66	-1.06	-0.97	-0.95	-.20	-.16	-.52	-.25	.19	.57	.86	.87	.90	.72	.97	.84	.96	.96	
첨도	-.12	.94	1.23	.77	-.03	-.12	.09	-.00	-.63	.22	.33	.27	.24	.15	.32	-.07	.20	.27	

\*p < .05, \*\*p < .01

가능한 점수 범위: 부모애착(1~5), 정서조절(1~5), 인지왜곡(1~5), 정서적 섬식(1~5)

<표 2>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chi^2$	df	TLI	CFI	RMSEA(90% 신뢰구간)
연구모형(부분매개)	209.38	71	.97	.97	.06(.05~0.07)
경쟁모형(완전매개)	209.55	72	.97	.97	.06(.05~0.07)

\* $p < .05$ , \*\* $p < .01$ , \*\*\* $p < .001$

먼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71, N=473)=209.38, p<.001, CFI=.97, TLI=.97, RMSEA=.06(90\% \text{ 신뢰구간 } .05 \sim .07)$ . 경쟁모형인 완전매개 모형도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72, N=473)=209.55, p<.001, CFI=.97, TLI=.97, RMSEA=.06(90\% \text{ 신뢰구간 } .05 \sim .07)$ . 따라서  $\chi^2$  차이 검증을 통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더 간명한 경쟁모형을 그림 2의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Delta\chi^2(1, N=473)=0.17(p<.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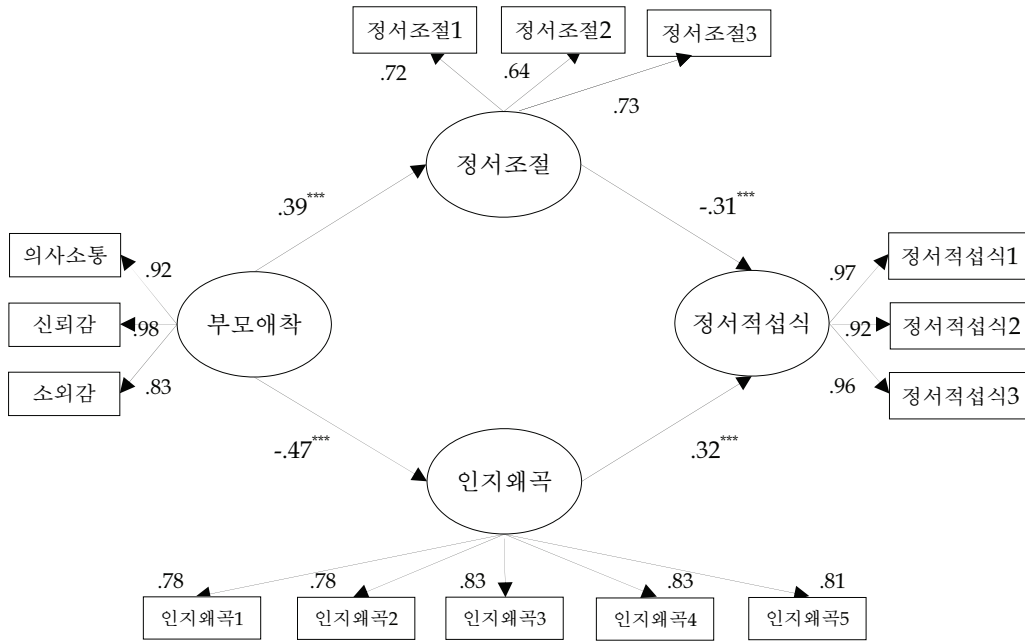
### 최종모형 검증

최종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4개의 직접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다. 최종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와 모수 추정 결과는 표 3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표 3> 최종모형의 모수 추정 결과

경로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t
부모애착 → 정서조절	0.03	0.39	0.00	7.19***
부모애착 → 인지왜곡	-0.14	-0.47	0.01	-9.73***
정서조절 → 정서적 섭식	-0.55	-0.31	0.10	-5.28***
인지왜곡 → 정서적 섭식	0.14	0.32	0.02	6.17***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3] 최종모형

### 매개효과 검증

최종모형에서 정서조절과 인지왜곡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공식을 이용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고, 검증결과는 표 4에 제시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모형에서 간접경로는 총 2개가 존재하는데, 2개의 간접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애착과 정서적 섭식 사이에서 정서조절이 갖는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12$ 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부모애착과 정서적 섭식 사이에서 인지왜곡이 갖는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15$ 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표 4> 간접 효과 검증 결과

경로		간접효과	Sobel test Z
부모애착	→ 정서조절 → 정서적 섭식	-.12	-5.50**
부모애착	→ 인지왜곡 → 정서적 섭식	-.15	-6.26**

\*  $p < .05$ , \*\*  $p < .01$ , \*\*\*  $p < .001$

부모애착, 정서조절, 인지왜곡 및 정서적 섭식 간의 성별차이 분석

성별에 따른 변수 특성

정서적 섭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성별에 따라 각각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또한 남녀 청소년의 성별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성별에 따른 변수 특성(남 N=201, 여 N=272)

경로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부모애착	남자	97.03	18.31	1.01
	여자	95.19	20.52	
정서조절	남자	10.18	1.82	2.54*
	여자	9.74	1.85	
인지왜곡	남자	69.40	19.19	-6.07**
	여자	80.75	20.74	
정서적 섭식	남자	22.57	10.51	-8.11**
	여자	31.99	13.78	

\*p < .05, \*\*p < .01, \*\*\*p < .001

각 하위변수에 대한 남녀 청소년의 성별 차이는 정서조절, 인지왜곡, 정서적 섭식행동에서 나타났다. 정서조절능력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은 반면, 인지왜곡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심하고, 정서적 섭식행동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높게 나타난다고 사료해볼 수 있다.

형태동일성 검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구조모형의 경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남녀 집단에서 기저모형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형태동일성을 검증하였고, 두 집단에서 측정변수들이 동일한 잠재변수를 구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두 집단에서 경로계수들이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동일성을 검증하였다(홍세희, 2001). 먼저 다집단 분석을 위한 첫 단계로, 본 연구에서 전체 집단에 대해 실시했던 구조모형이 남녀 청소년 집단의 자료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남자 청소년 집단의 모형 적합도는  $\chi^2(df=72, N=201)=133.15, p<.001, CFI=.97, TLI=.96, RMSEA=.07(.05\sim.08)$ 로, 여자 청소년 집단의 모형 적합도는  $\chi^2(df=72, N=272)=163.37, p<.001, CFI=.97, TLI=.96, RMSEA=.07(.05\sim.08)$ 로 나타나 남녀 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모형적

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측정동일성 검증

남녀 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구조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다음 단계에서는 측정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동일성 검증은 남녀 청소년 집단 간 측정변수의 요인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완전측정동일성 모형과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 간  $\chi^2$  차이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Klein, 2011). 이때, 기저모형은 형태동일성이 검증된 두 집단을 합한 전체 모형으로 구성된다. 검증 결과, 완전측정동일성모형과 기저모형 간의  $\chi^2$  차이는 19.64로, 이는 자유도 차이 10에서 유의하여 완전측정동일성이 기각되었다( $p < .05$ ). 따라서 남녀 청소년 집단 간 경로 요인계수의 차이가 가장 큰 경로인 정서조절 2, 정서적 섭식행동 2의 제약을 풀어주는 후진선택법(backward)을 사용하여 부분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저모형과 부분측정동일성 모형 간의  $\chi^2$  차이 값이 6.68로, 이는 자유도 차이 8에서 유의하지 않아 부분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다.

### 구조동일성 검증

각 잠재변수 간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잠재변수 간의 경로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부분측정동일성모형과 구조동일성모형 간의  $\chi^2$  차이는 3.35로 이는 자유도 4에서 유의하지 않아 구조동일성이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완전 구조동일성 검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특정 경로에서 남녀 청소년 집단 사이에 존재할지 모르는 경로계수 간의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분 구조동일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로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부분측정동일성 모형을 기저모형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경로에서 남녀 청소년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6> 남녀 청소년 집단 간 동일성 검증

모형	$\chi^2$	df	TLI	CFI	RMSEA	$\Delta\chi^2$	$\Delta df$
기저모형	296.52	144	0.96	0.97	0.05		
완전측정동일성	316.16	154	0.96	0.97	0.05	19.64*	10
부분측정동일성	303.217	152	0.96	0.97	0.05	6.68	8
구조동일성	306.56	156	0.97	0.97	0.05	3.35	4
부모애착 → 정서조절	303.45	153	0.96	0.97	0.05	0.24	1
부모애착 → 인지왜곡	303.34	153	0.96	0.97	0.05	0.13	1
정서조절 → 정서적섭식	306.00	153	0.96	0.97	0.05	2.79	1
인지왜곡 → 정서적섭식	304.87	153	0.96	0.97	0.05	1.67	1

\* $p < .05$ , \*\* $p < .01$ , \*\*\* $p < .001$

최종 선정된 모형에서 집단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모수추정치는 표 7과 같다. 정서조절이 정서적 섭식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은 .05 수준에서 유의하고, 여학생은 .001수준에서 유의하여 정서조절이 정서적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크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반면 인지왜곡이 정서적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은 .001수준에서 유의하고, 여학생은 .01수준에서 유의하여 인지왜곡이 정서적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에게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계수 각각의 유의도는 단지 0과 얼마나 다른지를 검증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동일성 검증이라고 할 수 없고, 위의 완전구조동일성과 부분구조동일성 검증결과를 고려할 때, 남녀 청소년 집단 간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다.

<표 7> 최종모형에서의 남녀 청소년 집단별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t
남	부모애착 → 정서조절	.03	.45	.01	4.97***
	부모애착 → 인지왜곡	-.15	-.48	.02	-6.48***
	정서조절 → 정서적 섭식	-.35	-.22	.15	-2.38*
	인지왜곡 → 정서적 섭식	.14	.38	.03	4.58***
녀	부모애착 → 정서조절	.03	.37	.01	5.32***
	부모애착 → 인지왜곡	-.13	-.46	.02	-7.28***
	정서조절 → 정서적 섭식	-.65	-.39	.13	-5.13***
	인지왜곡 → 정서적 섭식	.09	.21	.03	3.05**

\* $p < .05$ , \*\* $p < .01$ , \*\*\* $p < .001$

##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정서적 섭식에 영향을 과정에서 정서조절과 인지왜곡의 역할을 규명하고, 남녀 청소년 집단에서 네 변인간의 관계가 동일한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남녀 청소년 집단의 섭식장애 예방 및 치료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정서조절을 잘하고, 체중과 섭식에 대한 인지왜곡은 낮으며, 정서적 섭식은 적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부모와 안정애착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서조절을 잘하고(Cooper & Warren, 2011), 역기능적 인지를 비롯한 인지왜곡을 덜 보이며(최현영, 서영석, 2005; Bruch, 1988; Jones et al., 2006; Turner et al., 2005), 정서적 섭식을 비롯한 이상 섭식행동이 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Tereno, Soares, Martins, Celani, & Sampaio, 2008; Young & Cooper,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정서조절을 잘할수록 정서적 섭식행동은 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이 폭식(이미현, 2009) 및 정서적 섭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임순, 1997) 및 정서적 섭식이 부정적인 정서에 대처하는 부적응적인 방법(Harrison, Sullivan, Tchanturia, & Treasure, 2009; Spoor, Bekker, Van Strien, & van Heck, 2007)이고, 정서적 섭식행동을 보이는 경우 정서조절과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보인다는 연구결과(Gianini, White, & Masheb, 2013)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체중과 섭식에 대한 인지왜곡이 높을수록 정서적 섭식행동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왜곡이 높을수록 폭식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보건복지부, 2003). 또한, 실제 비만도보다 스스로 인지하는 신체상이 체중감량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Duncan, Duncan, & Schofield, 2011), 인지왜곡이 높을수록 부적절한 체중조절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여중석, 2014)를 통해 인지왜곡이 지나친 체중감량 및 부적절한 체중조절 방법으로 이어지고, 결국 정서적 섭식행동을 비롯한 이상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둘째,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이라고 무조건 정서적 섭식행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안정애착이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으로 이어질 때, 정서적 섭식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애착 그 자체가 정서적 섭식을 예측하는 단일 변인으로 유의하지 않고, 정서조절이 연결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애착과 정서적 섭식행동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한다는 선행연구결과(Tasca et al., 2009; Taube-Schiff et al., 2015)와 일치한다. Mikulincer와 Shaver(2012)도 불안정애착 그 자체가 정신병리의 충분한 원인이 아니라 불안정애착과 정신병리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정서조절이 부모애착과 정서적 섭식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을 키워줌으로써 부모애착이 정서적 섭식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및 심리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겠다.

셋째,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체중과 섭식에 대한 인지왜곡이 덜 나타났고, 인지왜

곡이 덜할수록 정서적 섭식행동도 적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것처럼 애착이 정서적 섭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지왜곡이 매개한다는 의미는 애착이 인지왜곡을 통하여 정서적 섭식에 영향을 주는 발생적 기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지왜곡이 애착과 정서적 섭식을 연결하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대한 지각에도 장애를 받는다고 보고한 Bruch(1988)의 연구 및 인지왜곡이 이상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이정애, 1997; 이동숙, 2003; 임소영, 2006; 조희경, 2009; Wilson & Fairburn, 1993)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인지이론에서도 인지왜곡이 섭식장애에서 핵심 정신 병리의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였고(김정욱, 2000), 이에 기반한 인지행동 치료에서도 음식·체중·신체상과 관련된 왜곡되고 역기능적인 믿음이 섭식장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고 Fairburn과 Harrison도 언급하였다(최진미, 김남재, 2009에서 재인용).

넷째, 구조모형에 대한 다집단분석의 결과, 남자 청소년 집단과 여자 청소년 집단 모두 부모애착과 정서적 섭식행동의 관계를 정서조절과 인지왜곡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 청소년 집단 간의 경로계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차 남성들도 외모에 관심을 갖고, 신체 외모를 가꾸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외모관리행동에 있어 성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신미연, 이정윤, 2012). 반면 남녀 대학생(김영신, 양난미, 2010), 남녀 고등학생(김혜련 외, 2008) 집단에서 섭식행동에 성차가 있음을 보여주었던 선행연구 결과 및 신체 왜곡 경향성이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임희진, 박형란, 구현경, 2009; 조영미, 2005; 조화란, 2013)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각 연구마다 사용한 연구모형, 연구변인 및 연구대상의 차이 때문일 수 있겠다. 또한, 다집단 분석을 이용하지 않고 성차 비교를 제시한 선행연구와의 직접 비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남녀 모두에게 정서적 섭식행동에 대한 상담 전략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실상 이미 형성된 애착을 변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며(현미나, 채규만, 2012), 과거의 애착 경험 자체에 대한 탐색이나 치유에 초점을 맞추고 통찰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는 섭식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매개변인으로 확인된 정서조절과 인지왜곡 변인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즉, 상담자는 섭식 문제를 지닌 청소년 내담자의 과거 애착 경험 혹은 현재 섭식행동의 수정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인지왜곡으로 인한 신체불만족 혹은 부정 정서를 조절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정서적 섭식행동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한 하나의 작업으로,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마른 체형 혹은 근육질 체형을 강조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부추기는 매스컴을 비롯한 방송 프로그램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 자신의 신체를 바라보는 인지적 왜곡이 증폭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함께, 상담자는 청소년 내담자가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폭식을 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내담자와 함께 구체적인 정서조절 대처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부정 정서가 높은 사람들은 폭식행동이 심리적 위안을 주고, 유쾌하지 않은 자극으로부터 주의전환을 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폭식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고(전주리, 2011), 폭식행동은 체형과 체중에 대한 걱정을 증폭시켜 불쾌한 정서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어지며, 이들은 또 다시 부정 정서를 해결하기 위해 구토와 같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담자는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데 청소년 내담자와 함께 주력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섭식행동과 관련된 상담에서 치료적 개입의 초점으로 삼아야 할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실용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중·고등학교에 편중하여 자료수집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청소년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애착, 정서조절, 인지왜곡, 정서적 섭식을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런데 청소년의 주관적인 자기보고는 실제의 모습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자기방어나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왜곡된 응답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을 다양화하여 연구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을 구분하지 않고, 부모 애착으로 한 번에 측정하였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다른 애착관계를 경험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한계점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맺은 애착관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집단 간 경로계수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즉,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으로 정서적 섭식행동을 살펴보았지만, 사실상 매력적인 신체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예: 남성은 근육질 몸매 추구, 여성은 마른 몸매 추구) 속성을 달리하여 다양하게 종속변인을 설정함으로써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 섭식행동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이 정서적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과 인지왜곡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데 그쳤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매개변인들을 다룸으로써 부모애착과 정서적 섭식행동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섭식장애를 호소하는 남녀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모형을 다시 한 번 검증해봄으로써 변인들 간 관계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상 언급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섭식문제의 어려움을 지닌 청소년을 상담할 때, 실질적인 치료적 효과를 이룰 가능성이 큰 심리내적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본 연구의 결과가 섭식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을 상담하는데 있어 치료적 접근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수영 (2013). 부모애착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2013). 현대이상심리학 제 2판. 서울: 학지사.
- 김계하, 양경미 (2008). 농촌지역 중학생의 섭식장애와 부모-자녀 의사소통과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8(1), 55-63.
- 김영신, 양난미 (2010). 남녀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섭식억제간의 관계에서 신체비교와 신체불만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791-815.
- 김정내, 임성문 (2007). 부모 및 또래애착과 대학생의 섭식장애행동과의 관계: 자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학 연구, 14(5), 315-344.
- 김정안 (2012). 성인애착과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충동성과 감정표현불능성향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옥 (2000). 섭식장애: 날씬한 몸매를 위한 처절한 투쟁. 서울: 학지사.
- 김효정, 이임순, 김지혜 (1996). 식이행동 질문지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5(1), 141-150.
- 김혜련, 박수경, 김혜성 (2008). 청소년의 혼란스러운 식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차 (gender difference)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25, 71-95.
- 남현지 (2013). 청소년의 마음챙김과 정서적 섭식 및 정서조절곤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소현 (2008). 성별에 따른 학령기 후기 아동의 섭식장애 관련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4(4), 361-369.
- 문용린 (1999). 인성교육을 위한 정서 지능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대논총 제 5집.
- 박윤선, 최윤경 (2014). 다이어트, 섭식귀인양식 및 초기 부적응 도식이 정서적 섭식과 외부 단서적 섭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235-252.

청소년의 부모애착, 정서적 섭식행동, 정서조절과 인지왜곡의 구조적 관계 및 성별간 다집단분석

- 보건복지부 (2003). 청소년들의 외모인식과 건강수준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신미연, 이정운 (2012). 외모에 대한 지각된 사회문화적 영향과 다이어트 행동의 관계: 신체상과 인지왜곡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2(2), 183-198.
- 여중석 (2014). 여자 중·고등학생의 체중상태와 체형인지에 따른 체중조절행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경 (2011). 아동의 애착유형에 따른 정서조절능력 및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옥 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숙 (2003). 무용전공 학생들의 섭식행동 분석.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현 (2009). 부정적 정서와 폭식행동의 관계: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현, 김정규 (2012). 청소년의 신체상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31, 62-84.
- 이시은 (2009).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의 관계에 대한 자아 존중감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897-914.
- 이연희 (2010). 폭식 행동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임순 (1997). 섭식절제가 식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애 (1997). 폭식행동집단의 인지적 특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운 (2007). 청소년용 부적응적 사고적도의 개발 및 예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01-1021.
- 임소영 (2006). 사회지향성과 사회적 불안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인지왜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현숙 (2008).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완벽주의관계에서 비합리적인 신념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희진, 박형란, 구현경 (2009). 아동·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전주리 (2011). 정서조급성과 폭식행동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실 (2009). 사회지향성과 사회문화적 압력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섭식관련 인지왜곡을 매개로 하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미 (2005). 아동 및 청소년기의 신체상.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경 (200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과 여자 청소년의 이상섭식행동의 관계: 신체 비교와 섭식관련 인지왜곡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화란 (2013). 부정적 신체이미지를 가진 여대생의 귀인양식과 섭식행동.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정웅 (2013). 청소년문제와 보호. 서울: 양서원.
- 최진미, 김남재 (2009). 섭식문제가 있는 여대생의 부적응도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3), 723-740.
- 최현영, 서영석 (200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역기능적 진로사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71-684.
- 현미나, 채규만 (2012).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4), 69-85.
- 홍세희 (2001).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초와 응용. 서울: 구조방정식 모형 집중 워크샵. Department of Education and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 Ainsworth, M, D, S., &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s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4-454.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Bouchard, M., Target, M., Lecours, S., Fonagy, P., Tremblay, L., Schachter, A., & Stein, H. (2008). Mentalization in adult attachment narratives: Reflective functioning, mental states, and affect elaboration compared. *Psychoanalytic Psychology*, 25(1), 47-66.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678.
- Bradley, S. J. (2000). *Affect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New York: Guilford.
- Bruch, H. (1988). *Conversations with Anorexics*. New York: Basic Books.
- Cook, W. L. (2000). Understanding attachment security in family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285-294.
- Cooper, M. J., & Warren, L.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weight (body mass index) and attachment history in young women. *Eating Behaviors*, 12(1), 94-96.
- Duncan, J. S., Duncan, E. K., & Schofield, G. (2011). Associations between weight perceptions, weight control and body fatness in a multiethnic sample of adolescent girls. *Public Health Nutrition*, 14, 93-100.

- Gianini, L. M., White, M. A., & Masheb, R. M. (2013). Eating pathology,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overeating in obese adults with binge eating disorder. *Eating Behaviors, 14*(3), 309-313.
- Hamilton, C. E. (2000).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attachment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1*, 690-694.
- Harrison, A., Sullivan, S., Tchanturia, K., & Treasure, J. (2009). Emotion recognition and regulation in anorexia nervosa.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6*, 348-356.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4), 636-654.
- Jones, C. J., Leung, N., & Harris, G. (2006). Father-daughter relationship and eating psychopathology: The mediating role of core belief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5*, 319-330.
- Kenny, M. E., & Hart, K. (1992).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eating disorders in an inpatient and a college samp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521-526.
- Kiang, L., & Harter, S. (2006). Sociocultural values of appearance and attachment processes: An integrated model of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Eating Behaviors, 7*(2), 134-151.
- Klein,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New York: Guilford.
- Lewis, M., Feiring, C., & Rosenthal, S. (2000). Attachment over time. *Child Development, 71*(3), 707-720.
- Lundholm, J. K., & Waters, J. E. (1991). Dysfunctional family systems: Relationship to disordered eating behaviors among university women. *Journal of Substance Abuse, 3*(1), 97-106.
- MacCallum, R. C., Browne, M. W., & Sugawara, H. M.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2), 130-149.
-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Educators*(pp. 3-31). New York: Basic Books.
- Mikulincer, M., & Shaver, P. R. (2012). An attachment perspective on psychopathology.

- World Psychiatry*, 11, 11-15.
- Mizes, J. S., & Klesges, R. C. (1989). Validity, reliability and factor structure of the anorectic cognitions questionnaire. *Addictive Behaviors*, 14, 589-594.
- Pesa, J. A., & Turner, L. W. (2001). Fruit and vegetable intake and weight-control behaviors among US youth.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25(1), 3-9.
- Pinaquy, S., Chabrol, H., Simon, C., Louvet, J., & Barbe, P. (2003). Emotional eating, alexithymia, and binge eating disorder in obese women. *Obesity Research*, 11, 195-201.
- Ringer, F. & Crittenden, P. (2007). Eating disorders and attachment: The effects of hidden processes on eating disorder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15, 119-130.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Spoor, S. T., Bekker, M. H., Van Strien, T., & van Heck, G. L. (2007). Relations between negative affect, coping, and emotional eating. *Appetite*, 48, 368-376.
- Sroufe, L. A. (2005). Attachment and development: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adulthood.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7(4), 349-367.
- Suldo, S. M., & Sandberg, D. A. (2000).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tyles and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mong college wome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15(1), 59-73.
- Tasca, G. A., Szadkowski, L., Illing, V., Trinneer, A., Grenon, R., Demidenko, N., & Bissada, H. (2009). Adult attachment, depression, and eating disorder symptoms: The mediating role of affect regulation strateg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 662-667.
- Taube-Schiff, M., Van Exan, J., Tanaka, R., Wnuk, S., Hawa, R., & Sockalingam, S. (2015). Attachment style and emotional eating in bariatric surgery candidates: The mediating role of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Eating Behaviors*, 18, 36-40.
- Tereno, S., Soares, I., Martins, C., Celani, M., & Sampaio, D. (2008) Attachment styles, memories of parental rearing and therapeutic bond: A study with eating disordered patients, their parents and therapist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16, 49-58.
- Turner, H. M., Rose, K. S., & Cooper, M. J. (2005). Parental bonding and eating disorder symptoms in adolescents: The meditating role of core beliefs. *Eating Behaviors*, 6, 113-118.
- Ty, M., & Francis, A. (2013). Insecure attachment and disordered eating in women: The

mediating processes of social comparison and emotion dysregulation. *Eating disorders*, 21, 154-174.

Van Strein, T., Frijters, J. E., Bergers, G. P., & Defares, P. B. (1986). The Dutch Eating Behavior Questionnaire(DEBQ) for Assessment of Restrained, Emotional and External Eating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5(2), 295-315.

Whiteside, U., Chen, E., Neighbors, C., Hunter, D., Lo, T., & Larimer, M. (2007). Difficulties regulating emotions: Do binge eaters have fewer strategies to modulate and tolerate negative affect? *Eating behavior*, 8(2), 162-169.

Wilson, G., & Fairburn, C. (1993). Cognitive treatments for eating disord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2), 261-269.

Young, E., & Cooper, M. (2013). Applying a cognitive model to binge eating in a female community sample. *Eating Behaviors*, 14(3), 295-298.

## **A Structural Analysis of Parental Attachment, Emotional Eating, Emotional Regulation and Cognitive Distortion of Adolescents and Gender Group Differences**

Kim, Hye Weon

Lee, Jee-Yon

Ewha Womans University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and cognitive distor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arental attachment and emotional eating. Additionally,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gender differences on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73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were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main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 First, greater secure attachment was associated with greater emotional regulation, less cognitive distortion about weight and eating and less emotional eating. In addition, greater emotional regulation was related to less emotional eating, while greater cognitive distortion about weight and eating was associated with greater emotional eating. Second, secure parental attachment did not necessarily led to less emotional eating. Rather, secure attachment led to adolescents' greater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which in turn predicted less emotional eating. Third, the more secure parental attachment was, the less cognitive distortion about weight and eating was reported. Moreover, fewer cognitive distortions was related to less emotional eating. In summary, emotional regulation and cognitive distortion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emotional eating. The result of the present study suggested that parental attachment by itself is not a significant predictor for emotional eating, but that emotional regulation and cognitive distortions are linkage between them. Fourth, The multi group analysis results identified that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 among construct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parental attachment, emotional eating, emotional regulation, cognitive distortion, mediational effect, multi-group analysis*